

ECHO^{#04}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vol.4

총괄편집장 김성해 Kim seong hae
정연주 Jeong yeon ju

Design
남민지 Nam min ji
이승민 Lee seung min

Editor
나중일 Na jung il
윤유미 Yun yu mi
조은진 Jo eun jin

VOL4 CONTENTS :

E

- 05 취업만 강요하는 태세 “난 반델세.”
박사과정 진학 앞둔 어느 선배의 조언
- 08 나의 감성의 일부가 당신이길
유튜버를 꿈꾸는 강지혜 졸업생
- 10 우리는 어리기에 도전하고 무모하다
도전하는 박기석 졸업생

C

- 14 Photographer
3월,새로운 시작 이경연 학우의 이야기
- 16 마음, 먹기만 하지 마라
어학연수의 큰 도전을 시작한 이영운 학우의 이야기

H

- 19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난 일본여행
일본여행을 다녀온 여동조 학우의 인터뷰

O

- 24 외로울 때는 하악하악 오늘도 날이 새면 기쁜 일만 그대에게
이외수-하악하악 책 추천
- 26 대2병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대학교 2학년을 위한 영화, 노래 추천
- 29 당신이 라라랜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화 라라랜드 추천

-

- 31 2017 키워드 트렌드 ‘치킨런’

- 32 2017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버킷리스트





Engaging



취업만 강요하는 태세 “난 반달세”

박사과정 진학 앞둔 어느 선배의 조언, 대학원은 청춘의 또 다른 기회 글/최종환

상반기 공채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학생들의 마음은 초조해진다. 사상 최악의 구직난과 공공 얼어붙은 경제상황 탓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다. 여기 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봤지만 ‘최종 합격’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취업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 주말 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들렀다. 쌀쌀한 날씨와 학생들의 얼굴은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핏기 하나 없는 모습, 슬리퍼와 추리닝으로 대표되는 취업 준비생의 민낯은 따스함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추운 겨울과 무척 닮아 있었다.

취업이 전부일까?

2년 전 대학원 졸업과 함께 지역의 작은 홍보대행사에 취직을 할 때였다. 당시 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으니 돈을 모아 차를 사거나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계획을 세웠다.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특히 첫 직장이라는 설렘과 함께 글쓰기와 홍보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공무원과 연구원, 학교 선생님 등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썼다. 고된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뿌듯함도 많았다. 당시 우리 회사는 지역의 공공기관 블로그, SNS 등의 홍보대행을 맡았다. 주간, 월간 기획 기사를 쏟아 낼 때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 했다.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 발전적이지 못한 동료 관계 등이 늘 마음을 짓눌렀다.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잦은 야근과 사내 소통 부재 탓에 동료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려고 했다. 하루 이틀 만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 신입직원도 더러 있었다.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나는 1년 만에 사표를 던졌다.

사실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제도권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간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사회가, 선생님이, 가족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일상을 보낸다. 나이가 들어 노후 준비를 할 때쯤이면 깨닫게 된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라고.

입사 1년 만에 도로 학교로 가다

당시 나는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심보가 컸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언론과 정치, 사회문제 등을 좀 더 깊숙이 공부하기로 다짐했다. 오랫동안 운영했던 블로그에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글을 쓰며 나름대로 어깨가 으쓱해졌다. 올해 3월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상사 눈치를 보느라 늦은 시간까지 집에도 못가는 일도 없고, 순전히 내가 계획하고 벌인 일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논문을 작성하는 ‘지식 생산자’가 된다. 본인이 정한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탓에 이전 보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해법은 뭐지’라며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이 이어진다.

여러 학술 세미나, 학회 등에도 전전하며 내가 쓴 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전 보다 훨씬 많은 내공을 쌓을 수 있다. 이 과정들은 학교가 정해 준 교과목을 배웠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학원만이 지닌 남다른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 나온 위인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둑 기사 조훈현, 토익강사 유수연, 작가 이지성 등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당장 내일 밥 먹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만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만 고집하기에는 삶이 너무 불행한 것 같다.

고래는 바다에서만 헤엄치듯 인간 역시 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할 때 발전하게 된다. 대학원은 나에게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식의 세계에 빠져보거나,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지, 국가 정책은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보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과 방법을 찾으라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학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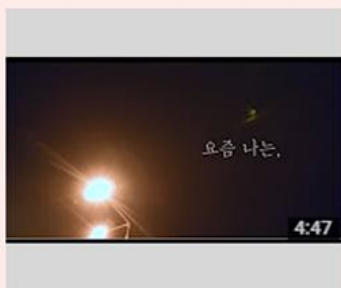
그렇다고 많은 청년들에게 대학원을 가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이 역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직업선택을 하기 전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이라는 장애물 앞에 서서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꿈을 꿨으면 한다.

나의 감성의 일부가 당신이길

뷰티&패션/일상/감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롱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 모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 깊숙이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시작을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나로써 가치 있는 존재기에 어떠한 일든 자신을 믿고 시작해보길 바란다. 그러다 가끔 뒤돌아 쉬고 싶을 땐, 유튜브에 “제롱” 혹은 인스타그램에 j_longdung2를 검색해 놀러오길!



어떻게 글을 써내려가야 나의 시작을,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당신의 시작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알려줄 수 있을지 수많은 고민 끝에 펜을 들었다.

“제룡”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지 이제 막 두 달이 다되어가는 구독자 85명을 보유하고 있는 새내기 유튜버로서, 유튜브에 마음을 다하게 된 시간들과 현재 제룡으로써의 삶을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혹여나 지금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던가, “아니야 나는 안 될 거야” 등의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주의 집중해 봐주었으면.

사실, 나는 중학교2학년 때부터 줄곧 작가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다. 누구보다 확고했고 다른 꿈은 절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나에게 하루 중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같은 정도였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단순하게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다. 너무 허무한가? 단순한 이유지만 가장 중요하며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여기 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앞뒤 생각하다보니 진작 우리 마음의 소리는 잊어버린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나는 반장선거를 나가고 싶었지만 반장선거에서 떨어질 두려움에 나가지 못했고, 계주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1등하지 못했을 때 찾아올 쑥스러움에 손을 들지 못했다. 항상 반장을 보며, 계주를 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후회하곤 했다. “나도 잘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에 잠 못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닐 정도로 후회를 많이 한 기억이 있다. 주변 친구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하고야 마는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정말 단순하게도 두려움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쑥스러움에 지고 싶지 않아서 도전 하는 거야”

이쯤 되면 나에게 “집에 돈이 많겠지. 취업 걱정이 없나봐 미래도 생각해야지 하고 싶은 걸 다하면서 어떻게 살아”와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 또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을 보며 던졌던 물음이기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담을 하나 하자면, 고등학교 일본어 시간에 날이 너무 좋아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날씨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라는 말에 진짜 나가서 한 시간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시험에서 처음으로 1점이라는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아보기도 했다. 국가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졸업은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한 달을 10만원으로 겨우겨우 살았던 적도 있다. 집에 돈이 많아서라던가, 취업걱정이 없던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시작의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러한 환경들은 하고 싶은 일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공부는 싫어했지만 토론수업을 좋아했고, 하늘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10만원으로 생활하며 배고픈 그 순간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얻는 뉘우침이 있어 참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생각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이들이 많은 상황들을 생각하다 놓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험 1점 받은 나도 하는데 너는 뭔들 못하겠니?

결론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제룡”으로써의 삶은 꽤나 흥미롭고 행복하다. 영상 기획과 편집을 혼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에 매 순간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다른 친구들처럼 직장을 가져 월급을 받아가며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1년의 시간을 투자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해볼 생각이지만 이 또한 조금해하지 않고 이뤄낼 생각이다. 얼마 전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갔을 땐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룡입니다.”를 어찌나 외쳐대는지 쑥스럽긴 했지만 나름 기분 좋은 인사였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나의 영상을 한번쯤은 봐주었다는 생각들이 새로운 시작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응원의 목소리라 생각되기에.

우리는 어리기에 도전하고 무모하다

글 / 박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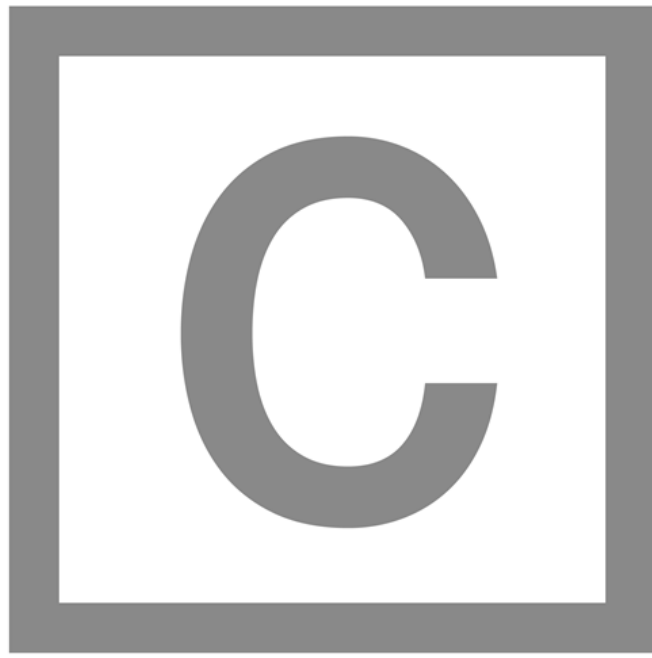
나는 정말 가진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호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때 통장에 240만원이 전부였다. 240만원도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정말 꾸역꾸역 모았던 돈이다. 호주를 갈땐 정말 아무생각이 없었다. 2013학년도 단과대학 학생 회장을 역임하고 수많은 생각이 오가던 때라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나는 누구인지 마치 이세상의 왕이라도 된마냥 어깨에 힘을 주던 내가 학기가 끝날 무렵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나를 감쌀뿐이었다. 인천 공항을 출발해 시드니로 도착, 멜버른으로 넘어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갈수가 없었다. 시차가 다르다는걸 깜빡하고 비행기를 놓쳐버렸다. 영어도 한마디도 할수없었다. 내가 아는 단어를 총 동원해서 직원과 이야기를 했다. 직원은 나를 정말 측은하게 보더니 직원할인? 느낌으로 비행기를 예약해주었다. 멜버른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멜버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했다. 난 아무런 준비도 하지않고 갔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었다. 숙소를 잡고 3일을 돌아다녔다. 길이 익숙해지기는 커녕 다리만 아팠다. 이력서를 써야했고 난 쓸것이 없다는걸 깨닫게 되었다.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해야할까..? 무모해 지자!!! 여기서 부터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멜버른엔 아라강 이라고 서울의 한강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강이 있다. 이 앞에 정말 엄청나게 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다. 일하고 싶었다 무얼 해도 좋으니 일을 해보고 싶었다.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음식도 먹어 봐야한다고 생각했고, 메뉴판을 보자마자 제일 비싼 메뉴를 선택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가? 무모해지라고 했다. 코스요리를 시켰다. 340불 우리나라 돈 으로 약 30만원 가량의 코스요리를 혼자서 말이다. 짹뻐입은 수트에 나는 무서울게 없었다.

코스요리를 먹던 도중 스테이크가 나왔다. 정말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때 나이프를 들고 접시를 툭툭 치며 웨이터를 불렀다. 영어가 짧았던 나라 인상을 쓰며 CALL THE CHEF 라고 말했다. 영어로 뭐라뭐라 했는데 기억은 안나지만 말을 끊으며 CALL THE CHEF라고 눈을 크게 뜨고 인상을 찌뿌리면서 말했다. 당연히 셰프가 나온다 두손을 모으고. 앞서 말했듯이 난 영어가 짧았다. 하지만 준비한 멘트가 있었다. wow beautiful food, u know ? actually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but I have enough skill to wash dishes.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양손으로 딸랑 딸랑 거리면서 그리고 I want work here 라고 말했다 셰프가 날보며 뭐라고 말했는지모른다. 나는 이력서를 건넸고 call tommorrow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고 나왔다. 다음날 아침에 셰프 한테 전화가 왔고 영어를 못하는 나에게 짧게 설명해줬다. come 6 o' clock ok? 난 당연히 ok를 했고 일을 하게되었고 몇 달이 지난후 영어를 어느정도 할 수 있을 때 물어봤다 날 왜 채용했는지에 대해. 사실상 접시를 닦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채용할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채용해달라는 돌+아이는 단 한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일이 일어날거라곤 상상을 해본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이 셰프가 호주에서는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사람한테 나이프를 던지고 채용을 해달라고 눈을 부라리고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얘기를 하니 얼마나 우스웠겠나 싶었다. 이일을 계기로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직장을 소개해줬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길 원했고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처음에는 멜버른 관재탑에서 청소도 했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잘한다며 관재탐에서 또 렌트카 회사를 소개해줬고 거기서도 일하는 모습을 이쁘게 여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늘려가던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겼다. 처음에는 부동산업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사람들이라면 다 알거다.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처음에 운영했던 셰어하우스가 생각 보다 잘되다보니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본업과 셰어하우스의 돈들이 같이 모이니 상당한 액수가 되었고 이렇게 넓혀진 셰어하우스는 총 3채가 되었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48평 자리 집 2개와 100평이 넘는 주택과 마당 까지 총3채 말이다. 이제는 정말 사업을 해야할거 같다는 생각에 주스를 팔아보기로 했다. 아 물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절대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수가 없다. 편법을 쓰긴 했지만 정당한 방법을 썼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레퍼런스 2장과 영주권자의 보증 2장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보았는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무모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갔다. 너희들은 무얼잘하는가? 뭘하고 싶은가? 세상을 살다보면 나보다 무언가 잘 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어리다. 어리기에 도전하고 무모해 쳐보는거다. 언젠가 이런이야기를 들은적이있다. 미인은 용기 있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나는 이야기 하고 싶다. 세상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용기를 내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똑똑하지도 무모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른사람들보다 조금 더 용기를 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갈 후배들이 힘든 일에도 어려운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다면 분명 자신이 생각한것 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다. 파이팅!



Communicating

photographer

2017년도는 아주 바쁘게, 설 틈 없이 살아야 할 거 같아요.

학생회에 사진 스터디에 캠프콘 활동까지!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가오니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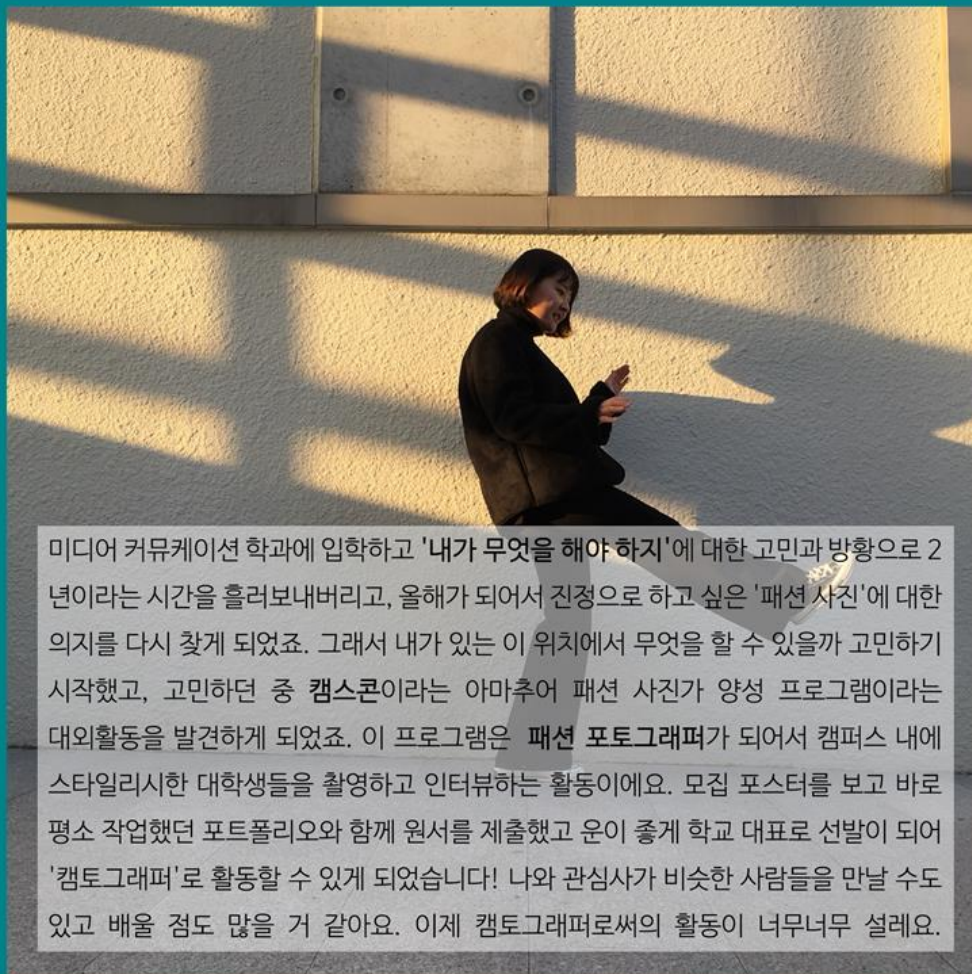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한편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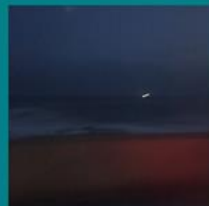
나를 어떻게 다시 변화 시켜줄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에서 오는 설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버리고, 올해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패션 사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찾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민하던 중 캠프콘이라는 아마추어 패션 사진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대외활동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프로그램은 패션 포토그래퍼가 되어서 캠퍼스 내에 스타일리시한 대학생들을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활동이에요. 모집 포스터를 보고 바로 평소 작업했던 포트폴리오와 함께 원서를 제출했고 운이 좋게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되어 '캠토그래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배울 점도 많을 거 같아요. 이제 캠토그래퍼로서의 활동이 너무나 설레요.



나쁜 선택일지는 후에 두고 불일이지만
안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한다

마음, 먹기만 하지 마라



이름만 들어도 설렘 3월이다. 3월은 얼어붙었던 자연에 생동감을,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에겐 설렘을, 그리고 누군가에겐 또 다른 내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계절이다. 흔히들 새롭게 시작하는 3월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삶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였다.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가 생각한다. 성인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전과는 달라질 인생에 대한 생각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학했다. 하지만,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에게 있어 크게 달라질 만한 것은 없었다. 술 마시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노는 게 변화라면 변화였다. 겉으로 보여 지는 것들만 바뀌었을 뿐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들은 이전과 그대로였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 지금에 와서야 돌이켜보면 신입생 때까지의 난 마음만 먹고 있었다. '대학 왔으니 운동해서 살 빼야지', '선배님들, 동기들과 꼭 친해져야지', '다양한 경험 해보아야지' ... 오로지 마음뿐이었다. 하겠다는 운동은 하지도 않았고, 학과생활에 참여하지도 않았었다. 다양한 경험은커녕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일이었다. 포부만 있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고 나중에서는 저런 마음들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밥상만 차렸을 뿐 떠먹어보지 않으니 무슨 맛인지 알 리가 없었고, 물 흐르듯 평범하게 흘러간 나의 1학년의 기억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입대하 군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2년이라는 군대는 인생에 있어 작은 터닝 포인트였다고 가끔 말하곤 한다.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였을까? 거기 있는 동안 뭐라도 얻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래서 운동을 했고, 선·후임들과 친해지기 위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 이것저것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그 이후로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결심까지 마음속에만 있던 걸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복학 이후 학과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직접 영상을 만들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고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 덕분에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를 맡을 수 있었으며 올해 호주 어학연수라는 큰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돌이켜보면 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른다. 도전하지 않은 지난 세월의 기억은 항상 같았고 특별한 것 없었다. 나 스스로에게도 변화될 것 하나 없었다. 하지만, 군대 이후 가졌던 실천이라는 자세는 관심 없던 것에 관심을 끌게 해주었고 항상 똑같은 것들도 달리 보이게 해주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마 실천하는 것에 있어 따라올 잘못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분명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하는 것이 더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경험하며 느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 뭐든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분명 나중에 무엇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후배들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각자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으며, 밤이든 주말이든 학교에 나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1학년 때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기도 했다. 아마 그 때문에 나 역시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하려 했는지 모른다.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마음만 먹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씨앗만 심는다고 열매가 나지는 않는다. 물을 줘야 열매가 자라듯 도전을 해야 결과가 뒤따라온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먹은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전했으면 한다. 도전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생각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17년 3월, 난 또 다른 내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잘한 선택일지, 나쁜 선택일지는 후에 두고 볼 일이지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나은 것이라 확신한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3월은 변화를 가져다줄 계절이 되길 바란다.



Hosting



글 / 여동조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일본 여행을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

나는 유치원때 멋있는 경찰이 되고 싶어했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경찰이 제일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지금은 추억거리로 남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20년전 질문을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단지 꿈이라는건 멋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는 꿈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물인 것 같아서 더욱더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인 듯 하다. 몇 년전부터 서점에는 20대를 위한 취업관련도서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을 봐도 나만의 문제가 아닌 내 또래에 다른 이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과연 다른 나라 20대들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 궁금증의 시작이 일본여행을 가려고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일본 여행의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다. 최대한 오래동안 머물면서 많은 이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은 만나기 위해 배낭을 메고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했다. 27박 28일동안 텐트에서 잠을 자고, 식사는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과 도시락으로 때우기로 했다. 그렇게 경비를 짜보니 3만엔 우리나라돈으로 30만원 정도면 충분했다.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직선거리 약 600km를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일본 여행의 첫 시작은 어땠나요?

우리의 여행의 시작은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했다. 일본까지 배로 무사히 도착을 해서 입국심사를 받는데 심사관이 우릴보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질문을 했다. 30일동안 어디서 묵을지, 경비는 얼마큼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까지 물어보았다. 거짓말로 대충 둘러댔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는 그냥 통과를 시켜주었다.



일본 여행의 첫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는데 입국심사 후 부터는 계획은 그냥 걷기만 했나요 ?

그렇게 작은 고비를 넘고, 항구를 빠져나와서 우린 무작정 오사카 방향으로 걷기만 했다.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상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두려웠다. 모든게 그렇든 처음이 가장 힘들었다. 5시간을 걷다가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시작했다. 준비한 작은 칠판에 “どこにでも大丈夫です(어디든지 괜찮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히치하이킹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도 히치하이킹이라는 문화가 아직 생소한 듯 우리를 보고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 한 트럭이 우릴 앞을 멈춰섰다. 우릴 태워준 교헤이와 켄타는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태워주었다고 하곤 후쿠오카를 빠져나와 휴게소에 내려주었다. 그렇게 처음 히치하이킹을 성공하고 자신감이 붙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가면 갈수록 우린 오사카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몇날몇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히치하이킹을 하니 어느새 오사카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두 다리와 히칭하이킹으로 오사카까지 간 사람은 제 주위에 동조씨 뿐인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중간 중간 다른 에피소드들은 없었나요 ?

물론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텐트 칠곳이 없어 야산에 텐트를 치다가 멧돼지를 만난적, 폭우로 3일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갇힌 적,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둘러 쌓였던적 등등 말도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가고 보니 모두 추억이 되었는데 같다. 여행 내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목공소에서 3년째 일을 배우고 있다는 교헤이와 켄타, 7년째 편의점알바를 하며 요요박물관을 만들고 싶었던 요요수집가 카제, 음식점 알바를 하면서 마술사가 되고 싶은 다이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니 내가 생각했던 꿈이랑은 사뭇 다른 점도 많이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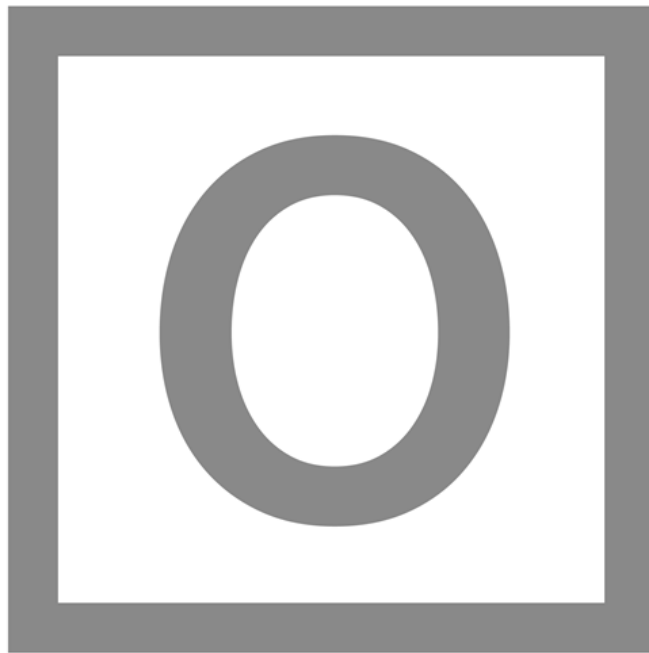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네요. 사람을 좋아하는 저로선 부러워요.
많이 느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여행 중 만났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보면 꺼려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었다. 많은 반성을 하게되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직업에 대한 귀천을 나누고 있었고, 단지 남들 보다 더 좋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은 많이 해보지않았다. 단 한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젊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ECHO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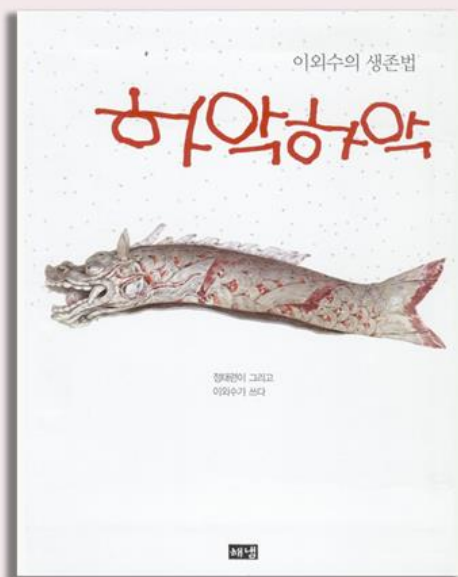
“넌 지금 뭘 하고 싶니?”





Outreaching

외로울 때는 하악하악 오늘도 날이 새면 기쁜 일만 그대에게



잡	다	한	욕	망	들	을	모	조	리	내	던	져	버	리	고
오	로	지	소	망	을	담	은								
큰	그	릇	하	나	만	을	간	직	하	지	않	으	면		
그	대	는	한	고	개	를	넘	기	도	전	에				
주	저	앉	고	말	리	라	.	하	악	하	악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여태 돌이켜봤을 때 나의 모든 일상은 '미루는 것'과 늘 함께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의 모든 하루는 예정된 알람 시간보다 5분 늦게 시작되었고, 웬지 시험공부도 아껴뒀다가 꼭 정각에 시작하고 싶었더랬다. 또한 제대로 된 연애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해보고 싶었고, 갓 스무살이 됐을 때는 취업은 조금 더 성숙했을 때 고민하고 싶었다. 그래서일까, 어제의 끝없는 고민들 역시 오늘날에는 다 해결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방향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을 것이라는 치기어린 믿음은 결국 더 큰 고민들로 번지게 한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다.

누군가는 1년에 한번 오는 봄도 그렇게 예쁘고 싱그러운데, 인생에 한번뿐인 청춘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고 되묻는다. 하지만 이도 결국은 누군가에게겐 상투적인 위로에 불과하다. 말은 누가 그렇게 못 하겠냐, 며 현실적인 말을 해달라는 대답과 함께.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요?'와 같은 물음에 대답을 듣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겉모습은 달라도 같은 고민과 비슷한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촌철살인의 한마디는 한 자루 칼보다 강하다. 간결한 문장으로 삶을 반성하게 만드는 책, 바로 이외수의 <하악하악>이다

‘그대가 그대 인생의 주인이다’

책의 저자 이외수는 갈래를 불문하고 에세이와 장편 소설, 시집 등 총 27개의 책을 썼다. 그가 등단하고 17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지났지만, 직설적인 문체와 먼저 소통하는 자세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혹시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혹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알고 싶다면 먼저 트위터에 들어가 보자. 소신으로 가득 찬 트윗과 230만에 달하는 팔로워 수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길을 가던 내가 잘못이냐 거기 있던 돌이 잘못이냐.
 넘어진 사실을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당신이 길을 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분명히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도덕적인 자세를 강요당했다. 웃어른들께는 공손하게, 모든 친구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그 사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관용은 당연시 되어 왔고, 배려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책에서 이외수는 그러한 일반화를 '늘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 또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과감한 이야기를 건넨 뿐이다. 또한 그런 비상식적인 타인들과 함께 자신은 더없이 포용하는 '누군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불만으로 여기면서 정작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청춘을 빌미로 미래를 방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읽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문장들은 끊임없이 나를 때리고, 생각하고, 무겁게 만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사람은 손이 두 개다.
 오드리 헵번의 말처럼 한 손으로는 자신을 보살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을 보살피라는 뜻이다.
 그럼 다리가 두 개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 다리로는 자신을 지탱하고
 다른 한 다리로는 나쁜 놈들을 조낸 걷어차주라는 뜻이다.
 아냐, 자비심. 나쁜 놈들에게는
 때로 발길질도 자비요 축복이다.

보통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서 '감명 깊다', '여운이 남는다'와 같은 감상을 남기기 쉽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든 생각은 단순하게도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은 딱딱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내듯 들려주는 책 속의 일화들은 오히려 읽다보면 무의식중에 '뺨 터지는' 큰 웃음을 자아낸다. 자신의 책을 외국에 출판할 때 '호리병'이라는 단어를 'horeesickness'로 번역했다며 시원하게 욕설을 내뱉는 유쾌함에 웃지 않고는 못 배기리라.

얼마 전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사실 물질적 빈곤보다 뭔가를 깨닫고 얻지 못하는 생동감 없는 삶이 더 슬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외수는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책 표지에 있는 생선의 아가미처럼 힘차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

대2병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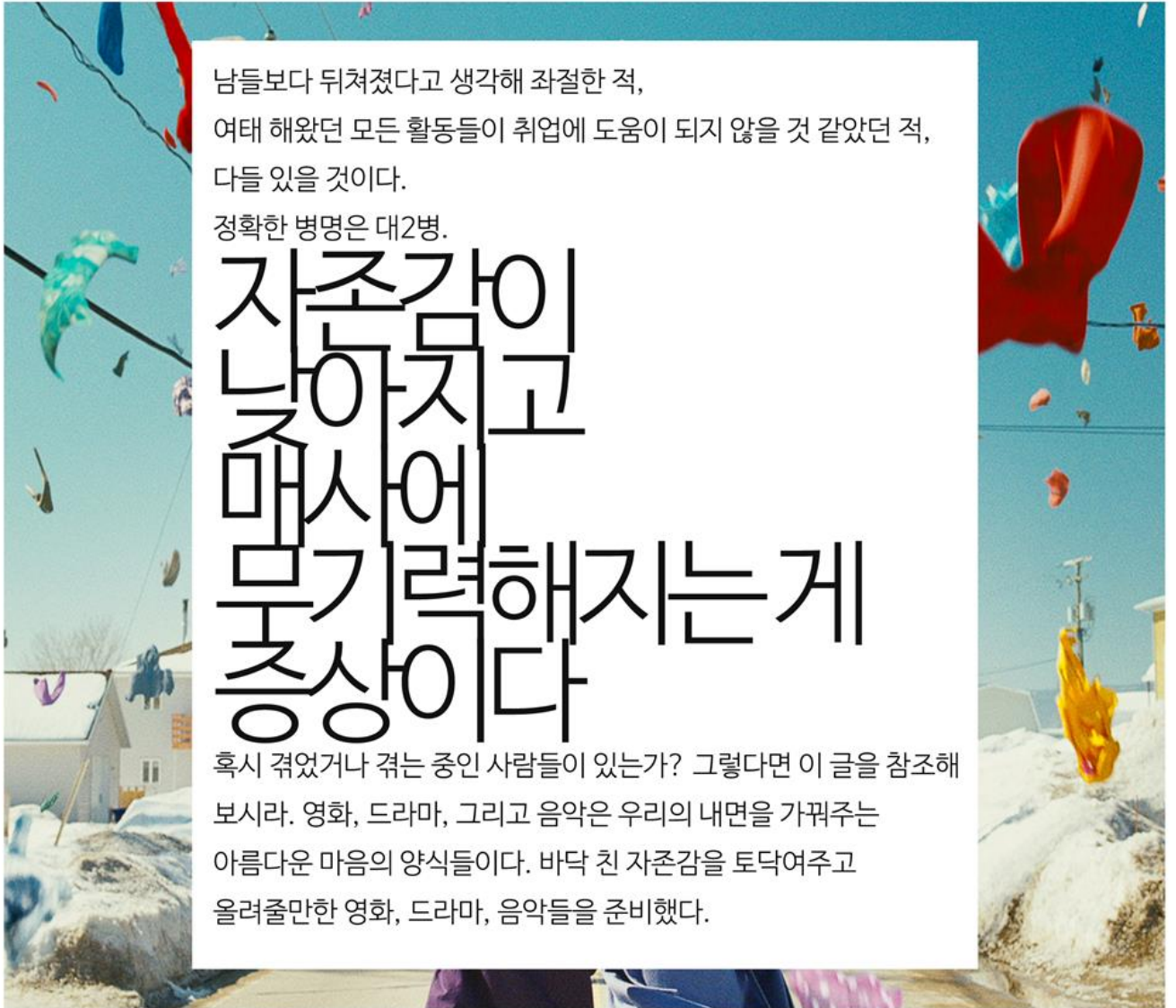
여기서 다들 말하는 것은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온전히 나뿐이다.
틀리다는 것이 아닌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존감은 조금 더 자라나지 않을까.

남들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해 좌절한 적,
여태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적,
다들 있을 것이다.

정확한 병명은 대2병.

자존감이
낮아지고
매사에
무기력해지는 게
증상이다

혹시 겪었거나 겪는 중인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글을 참조해
보시라.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악은 우리의 내면을 가꿔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양식들이다. 바닥 친 자존감을 토닥여주고
올려줄만한 영화, 드라마, 음악들을 준비했다.





1. 영화

〈월플라워〉 넌 살아있어. 넌 일어서서 건물들의 불빛들을 볼 수 있어. 또한 지금 달리면서 들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세상에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난 확신할 수 있어. 우리의 한계는 없어.

〈로렌스애니웨이〉 알다시피, 단어는 우리를 정의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거나 할 수 없다. 이건 그냥 네가 누구냐에 대해서다. 다름에 대해서가 아니다.

〈세월간이〉 성공은 따라가는 게 아냐. 좋은 공학자가 되면 성공이 널 따라가는 거지.

〈프랭크〉 ‘나는 왜 프랭크가 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나도 프랭크가 될 거야’라든지. 하지만 프랭크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

2. 드라마

〈또 오해영〉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두는 줄 알았는데, 개 옆에만 가면 난 그냥 들러리.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개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난 개가 되기로 선택할까?
안 하겠더라고요. 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괜찮아지길 바랐던 거지, 개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난 내가 여전히 애뜻하고 잘 되길 바라요, 여전히.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 저기 앉아있는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똥똥하고, 못생기고, 골칫거리란 걸 알게 된 거지. 저 소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니? 저 애가 자신에 대해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좋아 보여요. 완벽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네가 지금 네 자신에게 해줘야 할 말이다. 무섭고 불안할 때마다 네 자신을 달래야지. 네 자신에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 약속컨대, 너는 어떤 상황도 맞설 수 있을 거다.



3. 음악

제시카 Beautiful

다 선명 해지는데 / 너 혼자 희미해질까 두렵니
예쁜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 사진 몇 장으로 알 수 없잖아
진심이 뭔지 숨겨둔 이야기들은 / 어떤 건지 모르는 거잖아
주위 시선 그게 뭐 / 지나가는 일이야
네가 행복해야 해 / 그게 중요한 거잖아



레드벨벳 Cool world

좀 다르게 느껴 좀 다르게 봐 / 사람들 속에 걸도는 듯해도
날 사랑해서 내가 나다워서 / 이 시간들이 더 아름다운 거야
좀 다르게 느껴 좀 다르게 봐 / 더 다르단 건 특별한 거라고
날 사랑해서 내가 나다워서 / 난 최고의 친구가 돼 나에겐



핫펠트 Iron girl

움츠리고 숨죽이고 있어도 / 나는 주인공
성장하는 중인걸 / 내 열정은 못 죽일 걸
알아줘라 하나도 / 난 두렵지가 않아
결국 변하더라 떠나더라 / 허나 나는 남아
껍데기 아닌 알맹이 / 번데기 안에 나비임을
증명해 늘 준비하면 / 기뻐 올 게 분명해



세븐틴 예쁘다

예쁜 말 모두 모아서 / 따다 주고 싶은데
너 앞에 서면 자꾸 들어가는 말 / 새벽에 물을 마시면서
혼자 다짐해 나는 너에게 / 턱 끝까지 차 올랐던 그 말을
내일 꼭 하겠어 / 너 예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만큼 내면적인
변화는 없다. 세상의 모든 대2병 환자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이

La La Land

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골든 글로브 7관왕, 아카데미 6관왕에 달하는 <라라랜드>의 질주는 멈출 줄 몰랐다.
감독 데미안 셔젤의 전작은 <위플래쉬>였다. 아마 이번에도 소위 진이 빠지는 '미친' 영화를 기대했다면 안타깝다.
이 뮤지컬로맨스 영화가 성에 차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이 영화는 당신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1. 영상미

처음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감은 오프닝 시퀀스부터 등장한다. 한낮, 꽉 막힌 고가도로에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귀를 때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지는 석양을 무대로 함께 탭댄스를 추며 서로에게 끌리는 두 주인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꿈을 찾아갈 때의 배경색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원색의 옷과, 때깔 좋은 배경 덕에 보는 눈이 즐겁다.

2. 사운드트랙

뮤지컬 영화답게 음악이 빠질 수 없다. 대학 동기인 저스틴 허위츠 음악감독과 <위플래쉬>에 이어 같이 작업한 <라라랜드>는 두 주인공의 테마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은 물론이거니와, 귀까지 만족 시킨다.

3. 메시지

마지막으로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연기가 꿈인 미아(엠마 스톤)와 재즈를 살리는 것이 꿈인 세바스찬(라이언 고슬링)의 인연은 악연으로부터 시작된다. 꽉 막힌 고가도로에서 심기를 굽는 앞차, 그리고 클락션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은 우연처럼 파티에서 만나고, 지는 석양을 무대로 함께 춤을 추며 서로에게 끌린다. 그리고 사랑을 하다 필연처럼 이별한다.

왜 필연적인 이별이라는 것일까? 두 사람이 당연하게 이별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가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아의 마지막 오디션을 보고난 뒤, 그리피스 공원 벤치에서의 미아는 “우린 어디에 있지?”라고 묻는다. 미아의 질문에 세바스찬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고 답한다. 그 뒤로 둘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말하지만, 둘의 관계가 비틀어질 거라는 것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5년 후’ 겨울이다. 본디 사랑을 다루는 영화는, 다루고 있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처럼 미아와 세바스찬이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타인, 또는 구조적인 이유,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었던 ‘꿈’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렇게 꿈에 달은 미아는 세바스찬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고, 그가 연주하는 곡으로 예전의 기억들을 재구성한다. 마치 세바스찬에게 “만약”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 기억들은 ‘어쩌면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를 순간’들이 나열된다. 순간들의 끝엔 현실이 있었다. 밖으로 나설 때 마주치던 세바스찬의 눈빛은 미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그렇게 흘러가듯 다시 처연하게 건반을 친다.

미아를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부터 클락션을 울리던 순간, 미아의 일인극을 북돋워주던 순간, 꿈 앞에서 좌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던 순간, 순간의 기억들에는 항상 세바스찬의 메시지가 있었다. 어쩌면 키이스(존 레전드)와 함께 했던 밴드 ‘메신저스’는 세바스찬을 염두에 둔 것일지도 모르겠다.

꿈과 마법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아마 현실에선 이뤄지기 힘든 것이 아닐까.
 <라라랜드>는 누군가의 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법이기도 한 영화였다.
 이것이 당신이 <라라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017년 트렌드&키워드

'치킨런'

Chicken Run

1. YOLO라이프

(C'mon, YOLO :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 현재지향적, 감각적, 쾌락지향적 소비를 뜻한다. 저성장 시대에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삶이다.

2. 새로운 B+ 프리미엄 (Heading to B+ Premium)

무조건 싼 것보다, 보다 더 나은 성능을 원하는 소비형태. 기존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추가해 프리미엄급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누가 만족시키느냐에 시장의 성패가 달려있다.

2. 픽미세대 (I'm Pick-ME Generation)

20대와 30대 초반, 뽑혀야 살아남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세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회 변화의 중심 세력으로, 대선을 앞둔 2017년 가장 주목받는 연령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적인 소비와 작은 인정을 중시한다.

4. 캠티크(Calm-Tech, Felt but not seen)

일상생활에 첨단기술을 내장하여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사물인터넷으로 최적화된 스마트팜, (일상을 기록하는 초소형 웨어러블 카메라 등이 그 예이다.)

5. 영업의 시대가 온다(Key to success: Sales)

온라인과 모바일로 기업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현대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고려해볼 때 '고도화된 영업'만이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많은 정보로 무장한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6. 내멋대로 1코노미(Era of 'Aloners')

혼자서 즐기는 소비가 확산을 넘어,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는 현상이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Aloners'가 새로운 시대의 파워컨슈머로 자리매김한다.

7.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

(No Give up, no live up)

쓰고 버리는 패스트 메시지의 확산, 물질보다는 정신, 구매보다는 체험 현상, 클라우드화 현상이 배경에 있다.

8.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중심시장

(Rebuilding Consumertopia)

소비자가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배달하는 수요 중심 시장이 확대된다. 온디맨드, 카카오택시, 취향세분화, 크라우드펀드 등 소비자가 만드는 소비 시대이다.

9. 경험 is 똘들(User Experience Matters)

경험이 곧 경쟁력인 시대, 소비시장에서 체험의 경계가 확장되며, 경험이 모든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제품과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 개발, 이용자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10. 각자도생의 시대(No one backs you up)

2017년,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세상에서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미. 해결능력이 없는 행정력,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직장. 약화된 가족관계에서 각자도생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 2017 BUCKET LIST

MEDIA COMMUNICATION'17



2017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신입생의대학졸업전버킷리스트

- 대학졸업전에성적으로과탐을하여등록금전액면제
 - 해외봉사활동
 - 연애하기
 - 취업에필요한자격증따기
 - 호주로혼자배낭여행가보기
 - 남자친구를만들어벚꽃데이트가보기
 - 장학금을많이많이아주많이받아보기
 - 남자친구랑대학도서관에서시험기간에공부하기
- 대학다니면서우리학교만의패션잡지를만들어발간하기
 - 학업성적장학금을한번이상받아보기
 - 친구와유럽배낭여행떠나기
 - 과탐하기
 - 책30권정독하기
 - 좋은인간관계형성하기
 - 학점관리잘하기
 - 기숙사떨어지지않기
 - 진로와관련된다양한대외활동하기
 - 살빼서인생최고의몸매만들어보기
 - DUFDA활동해보기
 - 우리나라이곳저곳다녀보기
 - 부모님과제주도여행가기